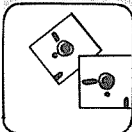


컴퓨터산업

- 지난 7월 16일 동 협의회(회장 : 삼보컴퓨터(주) 김종길 사장)는 정보산업발전환경 조성을 위한 초간담회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날은 삼성전자(주) 안경수 상무 등 컴퓨터업계 기획담당임원 10명이 참석 정보산업발전 환경조성사업구상(안)을 협의했다.
- 지난 7월 16일 동 협의회는 컴퓨터업계 기술개발 협력회의를 만보장에서 개최, 효성컴퓨터(주) 이재인 연구소장 등 기술개발담당 임원 9명이 참석 국내 컴퓨터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또한 기술분과 위원회를 구성 분과위원장에 삼보컴퓨터(주) 강진구 부사장을 선임했다.
- 지난 7월 25일 동 협의회는 컴퓨터산업 내수활성화를 위한 업계간 협력회의를 만보장에서 개최, 대우통신(주) 강현중 이사 등 10명이 참석 유통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 등을 협의했다. 한편 이날 내수분과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삼보컴퓨터(주) 정기정 이사를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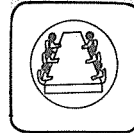
컴퓨터 특허산업

- 지난 7월 15일 동 협의회(회장 : 삼성전자(주) 김영수 사장)는 본회 회의실에서 금성통신동방청천 특허부장 등 12명이 참석 최근의 특허관련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가전산업

- 지난 7월 4일 동 협의회(회장 : (주)금성사이현조 사장)는 본회에서 가전3사 유통담당 임원이 참석 유통시장개방과 관련 가전업계 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전략 및 국산제품 품질개선 등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 지난 7월 18일 동 협의회는 본회 대회의실에서 (주)금성사 오희준 부장 등 5명이 참석 폐기물 예치제 요율의 불합리함과 적용시 가전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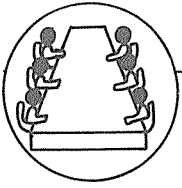
HA산업

- 지난 7월 16일 동 협의회(회장 : 삼성전자(주) 정용문 사장)는 본회 대회의실에서 동 협의회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 및 대일본시찰단 구성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공장자동화·정보화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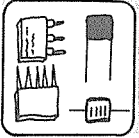
- 지난 7월 11일 동 협의회(회장 : 삼성항공산업(주) 안시환 사장)는 삼성전자(주) 등 7개 업체는 회의를 갖고 자동화기기 관세감면대상품목조정과 관련 상공부에 건의하는 등 82개 자동화기기를 관세대상품목으로 추가시



켜 줄 것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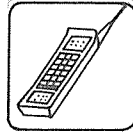
- 지난 7월 20일 동 협의회는 공장자동화기기 국산화 촉진의 일환으로 자동화정보화추진협의회 회원사 삼성항공, 금성계전, 금성하니웰 등이 요청한 국내 생산 가능한 사양의 자동화기기를 관세감면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코전자(주) 홍기룡 사장, 7월 10일 자기헤드 분과위원장에 태일정밀(주) 정강환 사장, 7월 12일에 디스플레이분과위원장에 삼성전관(주) 김정배 사장, 7월 16일 모터분과위원장에 한국써보(주) 이홍채 사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8월 15일 현재 모두 9개 분과위를 구성했는데 앞으로 각분과위는 업계의 총의를 수렴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여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산업

- 동 협의회(회장 : 오리온전기(주) 석진철 사장)는 지난 6월 14일 창립이후 각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7월 2일 콘덴서분과위원장에 알루미늄코리아 박주영 사장, 7월 3일 저항기분과위원장에 아비코(주) 신복출 사장, 7월 5일 변성기분과위원장에 오성전자산업(주) 유병화 사장, 7월 9일 센서분과위원장에 게



통신산업

- 지난 7월 15일 동 협의회(회장 : 대우통신(주) 박성규 사장)는 본회 대회의실에서 통신기술 분과위원회를 개최, 위원장에 동양텔레콤(주) 정충모 상무를 선임했다.